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2020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전공

장 미 소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강 승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전공

장 미 소

장미소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8월 28일



주 심 교 육 학 박 사 천 성 문 (인)

위 원 교 육 학 박 사 김 선 주 (인)

위 원 교 육 학 박 사 강 승 희 (인)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6
3. 용어의 정의	6
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6
나. 자아탄력성	7
다. 진로결정수준	7
4. 연구의 제한점	7
II. 이론적 배경	8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8
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개념	8
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인	10
2. 자아탄력성	13
가. 자아탄력성의 개념	13
나.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	14
3. 진로결정수준	16
가. 진로결정수준의 개념	16
나. 진로결정수준의 구성요인	18
4. 선행연구의 고찰	20
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20
나. 자아탄력성과 진로결정수준	21

III. 연구방법	23
1. 연구대상 및 절차	23
2. 연구도구	25
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25
나. 자아탄력성 척도	26
다. 진로결정수준 척도	27
3. 자료처리	28
IV. 연구결과	29
1. 주요 변인기술통계 분석	29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 그리고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분석	31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34
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34
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이 진로결정수준의 구성요인 중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수준에 미치는 영향	36
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이 진로결정수준의 구성요인 중 교육과 진로미결정의 전제조건에 미치는 영향	37
V. 논의 및 결론	39
1. 논의	39
2. 결론 및 제언	42
참고문헌	45
부록	60

표 목차

<표 III-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4
<표 III-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25
<표 III-3> 자아탄력성 검사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26
<표 III-4> 진로결정수준 검사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27
<표 IV-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및 진로결정수준의 기술통계·	30
<표 IV-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및 진로결정수준의 상관관계·	33
<표 IV-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이 진로결정수준 에 미치는 영향.....	35
<표 IV-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이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수준에 미치는 영향.....	37
<표 IV-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이 교육과 진로 미결정의 전제조건에 미치는 영향.....	38

**Effects of the Perceived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 on the Career Decision Level of College
Students**

Mi So Ja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college days are important because students should decide on their future job and career through exploration of their aptitude and potential, which means that they should decide on the direction and quality of their future life. If the students should get into their job world after graduation with their future career not determined clearly, they might retire earlier despite they have succeeded in the fierce competition for their jobs in the labor market. Hence, many colleges endeavor to assist their students in exploring and deciding on their future career.

Many preceding studies have researched into the psycho-social variables regarding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s. The important variables among them seem to be students' perceived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 the former variable means the confidence in the themselves regarding the successful performance of various tasks given to them, while the latter variable means the competence of coping with the stress caused in the process of planning and choosing the future care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rrelations between college students' perceived self-efficacy & ego-resilience and their career decision level, and thereupon, examine the effects of their perceived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 on their career decision level.

For this purpose, students of 'K' college in 'B' city were sampled randomly to be subject to a questionnaire survey. A total of 390 questionnaire respons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data collected thus were processed for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phas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lations between subjects' perceived self-efficacy & ego-resilience and their career decision level,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them were found.

Secondly, as a result of the phased regression analysis for the effects of subjects' perceived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 on their career decision level, it was found that the variables affecting their career decision level were such components of self-efficacy as selection of the goal, future planning, problem-solving and such component of the ego-resilience as sociability.

Lastly, it is conceived that in order to help improve our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 level, it would be deemed necessary to construct the system whereby some systematic and differentiated future career counselling services could be offered to the students, and to develop the programs thereof and increase the organizational efforts.

Key words: college students, self-efficacy, ego-resilience, career decision level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Super(1953)는 진로발달 이론에서 대학생 시기에 대해 전환기(transition substage) 및 시행기(trial substage)라고 표현하며, 취업 시 필요한 훈련 또는 교육을 받거나 본인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진로의 선택을 통해 생애 처음으로 직업을 갖는 시기라고 하였다. 이렇듯 대학생 시기의 발달 과업은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대한 탐색을 통해 장래의 직업 및 진로를 결정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다(김민정, 김봉환, 2007).

특히 대학생 시기는 대학 졸업 후 사회구성원으로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합리적으로 진로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학생 시기에 진로선택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이전 단계인 청소년 때부터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충분한 고민과 심도 있는 탐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중·고등학생 시기에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를 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진로지도의 부재 및 부모, 교사와 같은 주변인들의 권유에 의존하여 자신의 관심분야와 적성에 따른 진로탐색을 하지 않고 전공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회경제적인 환경 변화와 청년층 취업난으로 인해 대학생의 진로결정은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정철영, 최동선, 2003). 이러한 문제로 인해 대학생들은 편입이나 휴학, 졸업 유예 등을 하거나 자기 탐색과 이해가 없이 무분별한 취업 준비를 하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의 악순환 고리에 걸려들고 있다(이중

찬, 2013). 나아가 진로결정이 분명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을 졸업하여 직업세계로 진출하는 것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입사원들의 조기퇴직이 많은 이유가 될 수도 있다(엄동욱, 2008). 이와 관련하여 김현영(2012)은 진로지도를 통해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대학에서는 학생의 진로탐색과 결정을 위한 지원을 중요 이슈로 주목하고 있으며 올바른 진로결정을 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권성영, 신소영, 2014). 즉 각 개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노력은 진로를 명확히 결정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진로결정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진로결정수준과 관련된 변인을 확인하고 그 과정들을 파악해내는 연구는 진로지도와 상담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진로결정수준은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을 지칭하는 것으로(Wanberg & Munchinsky, 1992) 대학생들의 전공과 직업선택에서 진로결정과 연관이 되는 진로진행수준과 미래진로에 대해 확신하는 정도를 의미하기도 한다(고향자, 1992). Osipow(1999)는 진로지도의 구체적인 목표가 합리적인 진로결정에 이르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진로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진로지도와 연관된 연구에서 진로결정수준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었다(최화영, 2015).

진로결정수준의 중요성으로 인해 그동안 진로결정수준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다. 주로 진로의사결정유형(고향자, 1992), 진로성숙도(김용태, 박주현, 2009), 심리적 독립(박완성, 2002), 사회적지지(박지원, 박현석, 한용재, 2016), 진로결정효능감(양승민, 2003), 자아탄력성(허숙영, 2013)등과 같은 심리적 변인과 심리 사회적 변인들이 진로결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이처럼 대학생들의 합리적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여러 연구들은 진로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 중에서도 자기효능감에 주목하여 왔다(장선철, 2005; Hackett & Betz, 1981; Lent & Hackett, 1987; Senecal, Guay, Gauthier, & Fernet, 2003). 대학생들의 개인 외적 요인보다 개인 내적 요인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대학생들은 이미 독립된 개체로서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단계이므로 내적 요인을 좀 더 개발할 경우 진로 결정을 위한 목표 설정, 미래 계획과 같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다(김보경, 2012; 심예린, 201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진로와 직업 분야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여러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정의된다(Taylor & Betz, 198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에 유익하게 적용되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진로 탐색에 대한 욕구가 높고, 진로결정수준이 높기 때문에(Brown, Hackett, Lent, 1994) 진로를 결정해야 할 대학생들에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심리적 기제라고 할 수 있다(이정규, 200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함께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자아탄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학생 시기는 진로와 직업 정보를 탐색하고 대안을 선택하고, 직업을 결정하며, 일을 하기 시작하는 등의 활발한 진로관련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이유민, 2014).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연구한 강부명(2003)의 연구 결과 가족, 대인관계, 학업, 진로, 경제의 다섯 가지의 하위요인 중에서 진로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2008)에 의하면 대학생들 중 가장 심각히 생각하는 문제를 진로와 적성에 관한 스트레스(32.3%)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력을 높이는 심리적 변인으로 자아탄력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진로결정과 진로성숙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허숙영, 2013)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낮으면 취업 스트레스를 더 높이 지각한다(강경훈, 전영자, 2008)는 연구결과로 미루어 보아, 자아탄력성이 자신의 중요한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며, 이는 곧 진로결정에 있어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자아탄력성이란 자아를 통제하고 회복하는 노력을 통해 스트레스나 위험을 유발하는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적응하도록 하는 개인의 일반화된 조절 능력을 의미한다.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고 높은 자신감과 정서적 안정감, 자아 존중감을 지니고 있으며 인지적 능력과 사회적 기술을 갖추고 있다(장휘숙, 2001). 또한 긍정적인 정서를 사용하여 스트레스적인 경험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회복하며 스트레스와 충돌할 경우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내고 효과적인 정서 조절 기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Tugade & Fredrickson, 2004).

근래에는 자아탄력성을 발달 단계나 환경에 의해 유동적인 변화가 가능한 특성으로 보고(김동희, 2003), 발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란 관점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박원주, 이기학, 2008), 내재화 경로나 내재화 요인 등의 연구가 증가되었다(박원주, 2011). 따라서 자아탄력성이 진로발달과정에서 진로 문제에 직면해 있는 대학생들에게 스트레스 영향을 조절하고 적응에 도움을 주는 보호요인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이정희, 2015).

허숙영(2013)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진로 선택 문제와 성공에 대한 확신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진로결정과 진로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다고 보고하고 있고, 신혜정(2013)은 연구를 통해 자아탄력성이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써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 중 사회성이 높을수록 진로독립성이 높아지고, 긍정성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 및 확신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상황에서 자아탄력성은 중요한 내적 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선행연구들을 보면 자아탄력성을 독립변인으로 한 연구들은 대부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경선, 남현우, 2011),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강영미, 유순화, 윤경미, 2009; 문은숙, 2010; 성영순, 2012; 주정현, 2011)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진로결정과 취업 문제에 당면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미비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와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진로결정수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대학 수준에서의 진로지원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또한 대학생들의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유연한 이행을 돕기 위한 효과적인 진로 관련 교육과 취업상담을 위해 활용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구성하거나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문제를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진로결정 수준 간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이란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 분야에 적용시킨 개념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진로와 직업 분야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여러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정의된다(Taylor & Betz, 1983).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문제해결, 목표선택, 미래계획, 직업정보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며, Taylor, Betz(1983)가 개발한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를 Betz, Klein과 Taylor(1996)가 축소·개정하고 이은경(2001)이 변안한 CDMSES-SF에 대학생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나.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이란 자아를 통제하고 회복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스트레스나 위협을 유발하는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적응하도록 하는 개인의 일반화된 조절 능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며, 신우열과 김민규, 김주환(2009)이 개발한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 검사를 토대로 대학생에 맞는 문항으로 변형한 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다.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수준은 직업선택과 관련한 진로결정 과정에서의 진행 수준과 장래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정도를 말한다(고향자, 1992).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진로결정을 함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보여지는 장애요소의 확인과 진로선택과 진로미결정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Osipow, Carney, Yanico, Koschier(1980)가 개발한 진로결정검사(Career Decision Scale, CDS)를 고향자(1992)가 우리나라 문화에 적합하게 변안한 척도에 대학생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4.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는 B시에 소재한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일부 대학생들로 연구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 보고식 설문지 척도의 사용으로 참여자의 주관적 평가가 반영될 수 있어 변인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개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은 Bandura (1977)가 연구한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 분야에 적용시킨 개념이다. 그러므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이란 어떠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행동의 조직과 수행을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 정의하였고, 자신의 행동과 행동의 변화를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개인이 가진 자기효능감은 인간발달 과정의 모든 측면에서 어떤 일을 시작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일을 지속할 것인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Lent & Hackett, 1987).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청년기까지 학습경험, 즉 수행성취,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이나 격려, 정서적 각성을 통해 획득된다고 하였다(Bandura, 1977).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수행 성취란 자기효능감의 원천이자 가장 영향력이 있으며, 다양하며 많은 성공경험들은 자기효능감을 높이지만 반복적 실패경험들은 자기효능감을 낮아지게 한다. 그러나 실패가 노력을 통해 극복이 되어 성취의 경험을 하게 된다면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회복력이 있는 효능감 개발을 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모델이 제공하는 대리

경험을 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얻을 수 있다. 인간은 타인의 성공과 자신과 유사한 타인이 성취하는 것을 보거나, 상상함으로써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Adams, Bandura, Hardy, & Howells, 1980). 셋째, 성공할 수 있다는 언어적 격려를 받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고자 더욱 노력할 수 있으며, 그 노력을 지속하기 쉽다(Litt, 1988; Schunk, 1989). 넷째, 정서적 각성은 개인의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상태, 즉 심리적 상태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기분상태에 있을 때 자신을 효율적으로 판단하고, 우울한 상태에 있을 때는 비효율적이거나 과소평가하게 된다(김선중, 2005; Kavanagh & Bower, 1985).

Shelton(1990)은 일을 수행하면서 그 일의 환경, 내용에 따라서 적합한 자기효능감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했다. 진로와 관련되는 진로 행동과 진로 결정에서는 자기효능감은 다른 능력으로 요구가 되고, 진로와 연결되는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적절하다고 요구되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개념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에 대한 이론을 Hackett와 Betz(1981)가 진로발달의 영역에 도입하고 적용을 하면서 개인의 진로선택과 관련이 되는 효능감을 진로결정효능감이라고 명명했다. 그들은 자기효능감이 직업적 성취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인간이 실행하는 심리적 변인을 나타내고 미리 인지하려고 할 때 매우 의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진로발달모델에 자기효능감을 중요변인으로 포함하면서 처음으로 자기효능감 이론이 진로상담분야에 적용되었다. 이후 Talyor와 Betz(1983)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를 개발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라는 용어 사용을 통해 진로결정 및 진로교육 성취에 대한 자기신념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특정 영역인 공학과 수학 및 과학

계열의 진로결정에만 한정되었던 개념을 일반적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개념으로 전환한 것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진로와 직업 분야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여러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정의된다(Taylor & Betz, 1983). 국내의 경우 이현주(2000)는 개인 자신이 진로목표 성취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신념 또는 유능감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전공 또는 직업의 선택과 같은 진로 행동 수행 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이 보유한 능력에 대한 지각으로 부연설명을 하고 있다. 이성식과 정철형(2007)은 개인이 진로 관련 의사결정 시 필요로 하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 즉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준비하는 것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개인의 진로선택이 학업적인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교육선택의 과정 또는 학업성취 등과 연관이 되어 개인의 학업성취와 학업수행, 학업지속성 및 그 외에 진로와 관련된 변인들에 영향을 주는 중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하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진로결정 과정에서 관련 과제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또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인

자기효능감은 과제의 난이도와 복잡성,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학업적 상황과 같은 특수한 맥락 내에서 개인의 수행수준을 잘 예측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김아영, 1997)가 있다. 이를 볼 때

진로를 선택하고 행동하는 과정도 학업적 상황과 같은 특수한 맥락 내에서 다양한 의사결정행동과 수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진로와 관련된 자기효능감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이은영, 2008).

Betz(1994)는 특정한 진로영역에서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각이 된 자기효능감이 요구된다고 보고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학업 성취와 학업의 지속성 그리고 진로 선택과 진로와 관련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라고 추정하였다. 또한 Holland 직업성격유형과 직업 흥미를 기본으로 제시가 된 기술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이 지닌 확신을 직업적인 자기효능감으로 측정하여 직업흥미 및 직업자기효능감 그리고 직업선택의 연관성을 연구하였다.

Lapan(1989)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수학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에서 성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고, Holland 직업성격유형 중에서 탐구적·현실적 흥미와 탐구적·현실적 자기효능감의 점수가 각각 .64와 .58로 나타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만으로는 전반적인 진로발달의 경로를 밝히는 것에 한계가 있다.

Taylor, Betz(1983)는 수학, 과학, 또는 공학계열처럼 특정한 진로 영역과 연관된 자기효능감과는 다르게 일반적 진로결정과 관련이 된 자기효능감의 개발로 특정분야에 한정되었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의 개념으로 바꾸었다. 이후 이들은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성별 차, 진로결정 및 진로탐색행동, 진로성숙 등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연구들을 하게 된다. 진로결정과 관련이 된 자기효능감 척도는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 자기평가로 이러한 5개 요인을 하위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은경(2001)은 Taylor & Betz(1983)가 만든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를 Betz, Klein과 Taylor(1996)가 축소하고 개

정한 것을 본인이 번안한 CDMSES-SF를 활용하여 자기평가를 제외, 문제 해결, 목표선택, 직업정보, 미래계획의 4개 요인을 하위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고미나(2011), 김명숙(2009), 이성식(2007), 이종원(2014)과 이은교(2016), 정영미(2016) 역시 CDMSES-SF를 활용하여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 직업정보수집 등의 5가지 하위요인을 제시하였다.

Betz et al.(1996)는 문제해결, 목표설정, 자기평가, 진로계획, 정보수집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5개의 하위요인으로 제시하고 정의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해결이란 진로와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뜻한다(나용주, 윤병섭, 2017, 재인용).

둘째, 목표설정이란 개인 자신이 학업 또는 진로에 대한 확신으로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말한다.

셋째, 자기평가란 자신의 능력과 가치 및 욕구 등을 확실하게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부합되는 직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의미한다.

넷째, 진로계획이란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하며,

다섯째, 정보수집이란 흥미가 있는 직업을 탐색하고, 그 직업의 택하기 위한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뜻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문제해결, 목표선택, 미래계획, 직업정보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정하였다. 해당 구성요인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여 진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과업과 행동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각 개인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확인하고 진로결정수준에서의 영향을 알아내고자 한다.

2. 자아탄력성

가. 자아탄력성의 개념

Block과 Block(1980)은 각 개인이 탄력적이기를 원한다면 자아가 ‘현실 원리’에 따라서 적절하게 자아통제를 행하여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기능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resilience’라는 단어에 ‘ego’를 붙여서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이라고 표현하였다. 따라서 자아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자아통제를 이룰 때 탄력적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자아탄력성(resilience)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 고난이나 역경 그리고 예상치도 못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에 직면하여 이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Newman, 2005).

자아탄력성에 대한 정의는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하고 넓어서 합의된 개념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Groburg, 1995), 역경과 적응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Luthar & Cicchetti, 2000), 공통적으로 스트레스나 역경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해나가는 능력과 과정의 의미를 포함한다는 데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한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자아에 대한 유연성’을 뜻하는 것으로 연구자에 따라 긍정적인 적응의 ‘결과’로 보는 관점(Rutter, 1990)과 그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서 보는 관점(Bartelt, 1994)이 있다. ‘결과’로 보는 관점에서는 자아탄력성이 위협이나 역경에 처한 상황 속에서도 가치 있는 결과를 이끌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며, 나아가 부적응의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는 소극적 의미부터 성장 및 발달이라는 적극적 의미까지 포

함한다. 한편, ‘원인’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탄력성이 위험 요인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며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영향을 주는 특질들을 의미한다.

자아탄력성의 개념이 일관성 있게 정의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년 안팎일이며(Naglieri & Lebulle, 2003) ‘Resilience’에 해당되는 용어가 완벽히 정착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Resilience에 대한 번역은 자아탄력성, 적응유연성, 탄력성, 복원력, 유연성, 회복력, 심리 건강성(고유미, 2011; 김선희, 2011; 서지영, 2002; 신선희, 2010; 오승아, 이양희, 1999)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자아탄력성에 대한 정의와 용어표현의 다양함은 연구 결과 및 측정과도 관련성이 있기에 지속적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자아탄력성이 다양한 요인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 있으며(Grotburg, 1995), 인간의 긍정적인 능력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홍은숙, 2006).

본 연구에서는 진로 및 취업문제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자아탄력성을 통해 상황적 요구에 맞는 융통성 있는 행동들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아탄력성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이에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아탄력성을 다루고자 한다.

나.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

자아탄력성은 매우 다양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포괄적 개념이라는 점은 그동안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확인되었다(이해리, 조한익, 2005; Block & Kremen, 1996; Luther et al, 2000; Revich & Schatte, 2002; Wemer & Smith, 1993).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은 개인의 기질, 인지 능력, 성격적 특성, 대인관계 등의 개인 내적 요인들과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학교생활 등의 외적 요인 등으로 연구자들마다 그리고 접근 방식에 따라 매우 다양

하고 광범위하다(이해리, 조한익, 2005).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소가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된 만큼 측정의 도구도 다양성 있게 연구되었다. Block과 Kremen(1996)이 만든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y: ER)에서는 체계 유지 또는 증진을 위하여 환경적인 맥락에서 요구되는 기능인 자기통제수준을 대인관계와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및 낙관성으로 구성하였다.

박현진(1996)은 Klohen(1996)의 척도를 변안하여 대인관계, 자신감, 낙관적 태도, 분노조절을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박은희(1997)의 경우 O'connell-Higgins(1983)이 밝혀낸 자아탄력적인 아동들의 특성과 Block과 Kremen(1996)이 만들어낸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바탕으로 구성요소를 감정통제, 낙관성, 대인관계, 활력성, 호기심으로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이은석과 김성희(2012)는 한국 대학생 대상 자아탄력성 척도를 개발하였고, 하위요인을 긍정적 사고와 정서조절, 목표지향성과 의사소통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이수경, 이지연, 황순택(2001)은 한국아동인성검사와 자아탄력성척도의 타당성 연구를 통해 또래와의 관계 및 자신감과 쾌활함이 포함된 자기수용과 낙천성,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인정과 수용을 할 수 있는 능력, 가족의 화목함을 나타내는 가족관계 요인을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소라고 하였다. 이진환, 윤현희, 홍창혁(2001)은 한국아동인성검사의 척도를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부모 보고형 자아탄력성 척도를 제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소를 집중력과 자신감, 리더십, 또래관계, 낙천성, 공감과 자기수용, 이해력으로 밝혔다. 김미향과 김성희(2010)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의 내적요인을 밝혀낸 연구를 분석 및 종합을 하여 문제해결, 친밀행동, 긍정사고, 감정조절, 자율행동을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소로 파악했다.

신우열, 김민규 그리고 김주환(2009)에 따르면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을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이 3개의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통제성이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인식하고, 조절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은 통제하고 긍정적 감정으로 도전의식을 불러 일으키는 감정통제요인, 충동적인 반응을 억제시키는 충동통제력, 자신에게 처해진 상황을 객관적이며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처 방법을 찾는 원인분석력으로 구성되어있다. 둘째, 긍정성이란 실패 또는 어려운 상황을 한시적이라고 여기고 역경과 고난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하는 낙관성, 행복의 기본 수준인 삶의 만족도 및 삶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 감사해 하는 태도로 구성하였다. 마지막 셋째, 사회성 요인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 상태를 재빨리 파악하고, 깊이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계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감능력으로 이루어져있다(김주환, 2011).

3. 진로결정수준

가. 진로결정수준의 개념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결정들을 하면서 생활한다. 자신의 일생을 바꾸어 놓을 만큼 중요한 결정들에는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 포함되며 개인의 생애 중요한 발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Tolbert, 1980).

진로결정이란 개인의 행복하고 생산적인 삶을 위하여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탐색하고 선택하는 것으로, 직업세계에서 지속적인 성공과 안정을 취하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경험을 의미한다(Lope & Ann-Yi, 2006). 즉, 일회적 선택이 아닌 전 생애를 통해서 진행되는 선택과 결정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Super, 1990), 이는 진로결정이 결정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음

을 의미한다.

진로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들은 살펴보면 다양한 변인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진로결정수준은 개인의 진로 선택 및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김정화, 김미경, 김진경, 고은영, 2012).

고향자(1992)에 의하면 진로결정수준이란 직업의 선택과 관련하여 진로결정 과정에서의 진행 수준 및 미래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김봉환(1997)의 경우 진로결정수준이란 개인이 차후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신을 하는 정도를 뜻하며, 진로미결정과 확신하는 진로결정 사이의 어느 한 지점이라고 정의하였다.

임은미와 장선숙(2004)은 학생들의 학업이나 직업선택과 관련된 진로결정의 진행수준과 미래 진로와 관련하여 확신하는 결정 정도라고 정의하였고, 이상길(2008)은 각 개인이 결정한 진로에 있어서 얼마큼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과 확신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그 외에 홍미진(2012)은 진로결정수준이란 개인의 확실한 진로 결정을 위한 전 단계의 수준이라고 하였고, 김종운과 김현희(2015)는 진로와 연관이 되는 의사결정의 과정으로써 진로방향성을 결정하고, 구체적으로 진로분야에 대해 확신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진로결정수준에서 진로결정과 진로미결정의 두 개념을 살펴보면 진로결정이란 진로발달과정에서 적절하게 진로교육이 이루어져 진로설계를 스스로 하거나 결정적 시기에 합리적으로 진로결정을 할 수 있게 된 상태를 말하며, 진로미결정은 자신에 대한 이해부족,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인식과 정보의 부족, 선택의 어려움, 자신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을 지각하지 못한 것 등의 이유로 진로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 즉 진로결정과 상반되는 개념이다(강선영, 1996). 이러하듯 진로 결정이란 한 개인의 생애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고, 단순하게 특정한 사건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진로결정수준이 높다는 의미는 진로 선택을 위한 정보를 탐색하고, 적성과 흥미에 따른 직업 선택 능력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고미나, 박재황, 2011).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대학생에게 진로문제는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 단계이므로 매우 절실하고 구체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최숙현, 2008).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결정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나. 진로결정수준의 구성요인

진로미결정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도구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진로결정척도(Career Decision Scale: CDS, Osipow, Carney, & Barak, 1976), 직업결정척도(Vocational Decision Scale, Jones & Chenery, 1980), 진로미결정척도(Career Decision Difficulties Questionnaire: CDDQ, Gati, Krausz, & Osipow, 1996) 등이 있다.

첫째, 진로결정척도는 개인의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다. 해당 척도는 내담자와의 면접을 통해서 개발이 되었으며 1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미결정에 대하여 서로 구별이 되는 16개의 선행요인을 측정하게 된다. 이는 전체적으로 진로미결정에 관한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요인분석을 통하여 추출한 구조와 확신의 부족, 접근과 접근갈등, 선호하는 선택에 관한 지각이 된 외적 장애물 및 개인적 갈등까지 네 가지의 진로미결정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직업결정척도는 진로결정성과 결정성의 수준에 대한 편안함의 정도 그리고 미결정의 원인을 파악하는 도구이다. 미결정의 원인을 자기 불

확실성, 선택/일 중요성, 과도기적 자아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 척도는 후에 Career Decision Profiles으로 바뀌었으며(Jones, 1989), 여기에서는 결정한-편안한, 결정한-불편한, 결정하지 않은-편안한, 결정하지 않은-불편한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미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진로선택의 중요성과 자기명료화의 부족, 결단성 부족과 직업에 대한 지식 부족을 들고 있다. 진로미결정을 측정하는 검사들의 대부분이 진로미결정의 원인 또는 진로미결정의 수준 측정에 중점을 두었다면 직업결정척도는 진로미결정의 요인을 불안요인과 함께 측정함으로써 진로에 대해 결정하지 못한 내담자들을 좀 더 명확히 진단하고 분류하여 준다.

셋째, 진로미결정척도는 진로미결정을 측정하는 도구들이 한두 가지의 이론에만 치우쳐서 진로미결정 개념을 포괄적 측정으로 하지 못하거나, 경험론적 분류에만 초점을 두어 이론적 연계가 없이 개발된 단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여러 이론과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하나의 이론 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진로미결정척도는 위계적 서열을 지니며 최상위에 진로결정에 관한 어려움, 그 하위에 준비의 부족과 정보의 부족, 정보에 대한 불일치로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누었다. 피검사자의 배경을 묻는 부분이나 진로결정의 어려움에 대해 묻는 세부 항목에 따라 44문항과 피검사자가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느끼는 전반적 어려움에 대한 평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선행연구의 고찰

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Taylor와 Betz(1983)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결정 활동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가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진로미결정자일수록 진로 관련 업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서 진로결정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나타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미결정자의 이해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변인임을 밝혀냈다(한희원, 2015, 재인용).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과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이성식, 2007),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진로결정수준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영란, 2007; 엄태영, 김교연, 한복남, 2009).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내적 통제와 자기조절 능력을 높임으로써 진로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며(이숙정, 유지현 2009),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이성식, 2007) 및 진로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이지, 김지애, 김지윤, 이동귀, 정신영, 2011).

김영상(2009)은 599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고, 자기효능감 수준이 낮을수록 의존적인 결정을 한다고 보았다. 여선영(2015)은 자기효능감이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교육을 선택하는

과정이나 개인의 학업성취와 직업흥미 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진로결정 수준으로 드러난다고 하였다.

앞선 선행연구들을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 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짐에 따라 진로결정수준 역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나. 자아탄력성과 진로결정수준

Wener(1993)는 진로탄력적인 사람의 특징으로 내적 통제감, 학업과 직업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 취미생활의 기쁨, 최소한 하나 이상의 무조건적인 관계, 긍정적 기질, 발달된 인지와 학업 기술, 과도기 동안 기회 포착, 강한 책임감, 타인 돕기, 종교 및 내적인 신념을 갖는 것이라고 하였다.

Waterman와 Collard(1994)는 지속적 학습과 변화에 따라 자신을 개선하고자 하는 준비가 되었거나 자신의 진로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King(1999)은 진로탄력성이 높을수록 자신의 능력을 높게 인식하여 자기효능감과의 정적상관을 나타낸다고 하였고, De Bruin와 Lew(2000)는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조직의 변화를 환영하며 자신감 있는 행동과 진로와 관련한 위기를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하였다.

국내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지각된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아탄력성은 지각된 진로장벽의 모든 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혜련, 2011). 허숙영(2013)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높을수록 자기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한 문제와 성공에 있어서의 강한 믿음과 확신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현(2011)은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에 관한 연구를 통해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지지와 자아탄력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한 결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혔고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의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밝혀냈다. 신혜정(2013)은 자아탄력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냈다.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 중에서 긍정성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성도 높아지고, 긍정성이 높을수록 진로확신성이 높아지며, 사회성이 높을수록 진로독립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로탄력적인 사람은 진로 장애물을 경험하거나 자신의 진로에서 부정적인 사건을 겪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뿐 아니라 더 강해지며, 다른 상황들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실직 상황에서도 자아의식과 평정심을 가지고 자기가치를 유지하는 등의 정체감의 손상 없이 높은 자존감을 유지한다고 밝혀졌다(김미경, 2014). 김진희(2015)는 진로탄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개인의 취업 의지와 정적상관을 가지므로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진로와 직업에 대한 가치관과 영역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로인한 미래의 불확실성이 더 커짐에 따라 진로상황에서의 개인 및 환경을 포함한 변화와 역경에 대처하는 능력이 길러질 필요가 있으며, 이는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박순선, 2015).

앞선 선행연구들을 통해 진로탄력성이 진로결정 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으며,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진로결정수준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20년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B시 소재 K대학의 학생 약 400명으로 임의 선정하고, 자료수집 시 연구의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익명성, 비밀보장 및 학문적인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 후 조사를 하였으며, 설문을 실시하는데 약 10분에서 15분이 소요되었다. 총 415명의 연구대상 중 부정확하게 응답한 대학생 25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90명의 자료를 최종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자가 263명(67.4%)으로 남자 127명(32.6%)보다 많았다. 연령 분포는 20세~31세까지였으며 23~25세가 212명(54.4%)으로 가장 많았고, 26~28세 85명(21.8%), 20~22세 78명(20%), 29~31세 15명(3.9%)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구성은 4학년이 260명(66.7%)으로 가장 많았고, 2학년 61명(15.6%), 3학년 54명(13.8%), 1학년 15명(3.8%)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전공학부를 살펴보면 인문 140명(35.9%)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계열 95명(24.4%), 자연과학계열 81명(20.8%), 의학계열 39명(10.0%), 예체능계열 35명(9.0%)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90)

구분	내용	사례수(명)	백분율(%)
성별	남자	127	32.6
	여자	263	67.4
연령	20세~22세	78	20.0
	23세~25세	212	54.4
	26세~28세	85	21.8
	29세~31세	15	3.9
학년	1학년	15	3.8
	2학년	61	15.6
	3학년	54	13.8
	4학년	260	66.7
전공학부	인문	140	35.9
	사회계열	95	24.4
	자연과학계열	81	20.8
	예체능계열	35	9.0
	의학계열	39	10.0

2. 연구도구

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고자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하고 축소·개정한 것을 바탕으로 이은경(2001)이 번안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미래계획(5문항), 직업정보(6문항), 목표선택(11문항), 문제해결(3문항)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21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의 Cronbach's α 는 목표선택 .859, 직업정보 .790, 문제해결 .661, 미래계획 .708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수	해당문항	Cronbach' α
목표선택	11	1, 2, 3, 6, 8, 9, 11, 14, 18, 20, 22	.859
직업정보	6	7, 15, 19, 21, 23, 24	.790
문제해결	3	13, 17, 25	.661
미래계획	5	4, 5, 10, 12, 16	.708
총 문항	25		.921

나. 자아탄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고자 O'Connell-Higgins(1983), Block, Kremen(1996)의 연구를 바탕으로 신우열과 김민규 그리고 김주환(2009)이 개발한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 검사를 검토하여 대학생에 적합한 문항으로 변형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7 문항으로 통제성(9문항), 사회성(9문항), 긍정성(9문항)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 5점 척도(1점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의 Cronbach's α 는 .887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의 Cronbach's α 는 통제성 .740, 긍정성 .815, 사회성 .746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 검사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III-3>와 같다.

<표 III-3> 자아탄력성 검사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수	해당문항	Cronbach' α
통제성	9	1, 6, 8, 13, 14, 22, 24, 26, 27*	.740
긍정성	9	2*, 3, 4, 11, 12, 16, 20*, 23, 25	.815
사회성	9	5, 7, 9, 10*, 15, 17, 18*, 19*, 21	.746
총 문항	27		.887

* *표시문항은 역 채점 문항

다. 진로결정수준 척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고자 Osipow(1980)등이 개발한 진로결정수준 검사를 토대로 고향자(1992)가 번안한 진로결정수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9문항으로 자기 보고식 문항 18개와 자유반응형 문항 1개로 구성되어있다.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수준(2 문항), 교육과 미결정의 전제조건(16문항)의 2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까지)로 측정되었다. 문항 1-2와 문항 3-18로 구분하여 채점하는데 1-2는 점수가 높을수록 확신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문항 3-18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가 미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18번까지 사용하고 3-18번은 역 채점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수준의 Cronbach's α 는 .908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의 Cronbach's α 는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수준 .605, 교육과 진로미결정의 전제조건 .910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수준 검사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진로결정수준 검사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수	해당문항	Cronbach' α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수준	2	1, 2	.605
교육과 진로미결정의 전제조건	16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910
총 문항	18		.908

**표시문항은 역 채점 문항

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정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활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 진로결정수준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인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과 구성요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았다.

첫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전체 평균은 3.61($SD=.55$)로 나타나 5점 척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평균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각 구성요인들의 평균은 목표선택 3.79($SD=.59$), 직업정보 3.73($SD=.64$), 문제해결 3.57($SD=.75$), 미래계획 3.37($SD=.65$)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구성요인들이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탄력성의 전체 평균은 3.71($SD=.44$)로 나타나 5점 척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평균 이상으로 보인다. 자아탄력성의 각 구성요인들의 평균은 긍정성 3.79($SD=.57$), 사회성 3.75($SD=.51$), 통제성 3.59($SD=.48$) 순으로 나타나 모든 구성요인들이 평균 이상으로 보인다.

셋째, 진로결정수준의 전체 평균은 2.78($SD=.47$)로 나타나 4점 척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은 평균 이상으로 보인다. 진로결정 수준의 각 구성요인들의 평균은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수준 2.89($SD=.60$), 교육과 진로미결정의 전제조건 2.66($SD=.53$) 순으로 나타나 모든 구성요인들이 평균 이상으로 보인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 및 진로결정수준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및 진로결정수준의 기술통계
(N=390)

변인	하위요인	M	SD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목표선택	3.79	.59
	직업정보	3.73	.64
	문제해결	3.57	.75
	미래계획	3.37	.65
	전체	3.61	.55
자아탄력성	통제성	3.59	.48
	긍정성	3.79	.57
	사회성	3.75	.51
	전체	3.71	.44
진로결정수준	확신수준	2.89	.60
	전제조건	2.66	.53
	전체	2.78	.47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 그리고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 분석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진로결정수준 간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631, p<.01$)은 진로결정수준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자아탄력성($r=.469, p<.01$) 역시 진로결정수준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의 각 구성요인들 간에는 전반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들 간에 가장 높은 상관은 목표선택($r=.702, p<.0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미래계획($r=.584, p<.01$), 직업정보($r=.568, p<.01$), 긍정성($r=.402, p<.01$), 통제성($r=.396, p<.01$)과 사회성($r=.396, p<.01$), 문제해결($r=.301, p<.01$)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수준의 구성요인인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의 각 구성요인들 간에는 전반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들 간에 가장 높은 상관은 목표선택($r=.636, p<.0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미래계획($r=.598, p<.01$), 직업정보($r=.529, p<.01$), 통제성($r=.383, p<.01$), 긍정성($r=.302, p<.01$), 문제해결($r=.290, p<.01$), 사회성($r=.261, p<.01$)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수준의 또 다른 구성요인인 교육과 진로미결정의 전제조건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의 각 구성요인들 간에도 전반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진로결정수준의 구성요인인 교육과 진로미결

정의 전제조건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들 간에 가장 높은 상관은 목표선택($r=.535, p<.0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직업정보($r=.417, p<.01$), 사회성($r=.414, p<.01$), 긍정성($r=.379, p<.01$), 미래계획($r=.368, p<.01$), 통제성($r=.274, p<.01$), 문제해결($r=.209, p<.01$) 순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진로결정수준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구성요인 중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인인 목표선택, 미래계획, 직업정보는 진로결정수준과 높은 정적상관관계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2>와 같다.



<표 IV-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및 진로결정수준의 상관관계

(N=390)

변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진로결정수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00											
2	.748***	1.00										
3	.486***	.495***	1.00									
4	.737***	.710***	.441***	1.00								
5	.873***	.874***	.748***	.854***	1.00							
6	.539***	.514***	.432***	.501***	.592***	1.00						
7	.479***	.429***	.316***	.381***	.475***	.573***	1.00					
8	.427***	.430***	.314***	.297***	.436***	.551***	.606***	1.00				
9	.567***	.537***	.414***	.460***	.588***	.822***	.873***	.846***	1.00			
10	.636***	.529***	.290***	.598***	.603***	.383***	.302***	.261***	.370***	1.00		
11	.535***	.417***	.209***	.368***	.447***	.274***	.379***	.414***	.422***	.406***	1.00	
12	.702***	.568***	.301***	.584***	.631***	.396***	.402***	.396***	.469***	.860***	.815***	1.00

주) 1. 목표선택 2. 직업정보 3. 문제해결 4. 미래계획 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 6. 통제성

7. 긍정성 8. 사회성 9. 자아탄력성 전체 10. 확산수준 11. 전제조건 12. 진로결정수준 전체

*** $p < .001$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들이 진로결정수준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수준에 대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잔차의 독립성을 검토하는 Durbin-Watson 통계량은 1.96으로 나타나 2에 가까우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22-2.56으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 중 진로결정수준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인인 목표선택($\beta=.702, p<.001$)으로 49.2%를 설명하고 있다. 목표선택의 변인에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인 사회성($\beta=.118, p<.01$)을 추가로 투입했을 때의 설명력은 50.4%로 R^2 변화량이 0.012로 나타나 사회성 변인은 추가로 1.2%를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인인 미래계획($\beta=.151, p<.01$)을 추가로 투입했을 때의 설명력은 51.4%로 R^2 변화량이 0.01로 나타나 미래계획을 투입하기 전보다 1%의 추가설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인인 문제해결($\beta=-.090, p<.05$)을 추가로 투입했을 때의 설명력은 52%로 R^2 변화량이 0.006으로 문제해결 변인은 추가로 6%를 설명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각 구성요인 중에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목표선택, 사회성, 미래계획, 문제해결 순서임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문제해결은 진로결정수준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진로결정수준에 관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IV-3>과 같다.

<표 IV-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N=390)

		B	SE	β	t
1단계	상수	.648	.111		5.837***
	목표선택	.562	.029	.702	19.395***
R ² =.492, Adj R ² =.491, F=376.147***					
2단계	상수	.388	.140		2.763**
	목표선택	.522	.032	.651	16.442***
	사회성	.110	.037	.118	2.968**
R ² =.504, Adj R ² =.501, F=196.265***					
3단계	상수	.347	.140		2.478*
	목표선택	.431	.044	.539	9.708***
	사회성	.113	.037	.121	3.078**
	미래계획	.110	.038	.151	2.876**
R ² =.514, Adj R ² =.510, F=136.058***					
4단계	상수	.387	.140		2.755**
	목표선택	.452	.045	.565	9.995***
	사회성	.124	.037	.133	3.368**
	미래계획	.122	.039	.168	3.175**
	문제해결	-.057	.026	-.090	-2.180*
R ² =.520, Adj R ² =.515, F=104.223***					

* $p < .05$, ** $p < .01$, *** $p < .001$

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이 진로결정 수준의 구성요인 중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수준의 구성요인 중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수준에 대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하고자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잔차의 독립성을 검토하는 Durbin-Watson 통계량은 1.95로 나타나 2에 가까우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지수(VIF)는 2.19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각 구성요인이 진로결정수준의 구성요인 중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수준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인인 목표선택($\beta=.636, p<.001$)으로 40.5%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목표선택의 변인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또 다른 구성요인인 미래계획($\beta=.282, p<.001$)을 추가로 투입했을 때의 설명력은 44.1%로 나타나 R^2 변화량이 0.036으로 미래계획 변인은 추가로 3.6%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들은 진로결정수준의 구성요인인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수준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수준의 구성요인인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수준에 대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IV-4>와 같다.

<표 IV-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이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수준에 미치는 영향

(N=390)

		B	SE	β	t
1단계	상수	.444	.152		2.915**
	목표선택	.646	.040	.636	16.244***
R ² =.405, Adj R ² =.403, F=263.868***					
2단계	상수	.363	.149		2.442*
	목표선택	.435	.057	.428	7.616***
	미래계획	.261	.052	.282	5.015***
R ² =.441, Adj R ² =.438, F=152.719***					

* $p < .05$, ** $p < .01$, *** $p < .001$

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이 진로결정 수준의 구성요인 중 교육과 진로미결정의 전제조건에 미치는 영 향

진로결정수준의 구성요인 중 교육과 진로미결정의 전제조건에 대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잔차의 독립성을 검토하는
Durbin-Watson 통계량은 1.95로 나타나 2에 가까우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
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22-1.71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각 구성요인이 진로결정수준의 구
성요인 중 교육과 진로미결정의 전제조건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인인 목표선택($\beta=.535$, $p < .001$)으로 28.6%의 설
명력을 가지고 있다. 목표선택의 변인에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인 사회적

($\beta=.227, p<.001$)을 추가로 투입했을 때의 설명력은 32.8%로 나타나 R²변화량이 0.042로 사회성 변인은 추가로 4.2%를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인 통제성($\beta=-.150, p<.01$)을 추가 투입했을 때의 설명력은 34.1%로 R²변화량이 0.013으로 통제성 변인은 추가로 1.3%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수준의 구성요인인 교육과 진로미결정의 전제조건에 대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IV-5>와 같다

<표 IV-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이 교육과 진로미결정의 전제조건에 미치는 영향

(N=390)

		B	SE	β	t
1단계	상수	.852	.147		5.801***
	목표선택	.478	.038	.535	12.462***
	R ² =.286, Adj R ² =.284, F=155.308***				
2단계	상수	.294	.182		1.610
	목표선택	.391	.041	.438	9.499***
	사회성	.236	.048	.227	4.915***
R ² =.328, Adj R ² =.324, F=94.365***					
3단계	상수	.467	.191		2.441*
	목표선택	.441	.045	.493	9.883***
	사회성	.297	.052	.285	5.660***
	통제성	-.164	.059	-.150	-2.765**
R ² =.341, Adj R ² =.336, F=66.538***					

* $p<.05$, ** $p<.01$, *** $p<.001$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진로결정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기존 연구와 관련한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치 결과를 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전체 평균과 하위 요인들의 평균 모두 중간보다 높게 나타나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평균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진로결정수준 역시 전체 평균과 모든 하위 구성요인들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진로결정수준 간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상관분석을 한 결과, 이들 변인 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간에는 전반적으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관한 많은 연구(신종원, 2015; 한효정, 2012; 황지영, 2007)와 일치한다. 진로결정수준과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요인들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이은정, 2012)와 일치한다.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의 각 구성요인들 간에

가장 높은 상관은 목표선택이며, 다음으로 미래계획, 직업정보, 긍정성, 통제성, 사회성, 문제해결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진로결정수준의 구성요인인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의 각 구성요인들 간에는 전반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의 각 구성요인들 간에 가장 높은 상관은 목표선택이며 미래계획, 직업정보, 통제성, 긍정성, 문제해결, 사회성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수준의 또 다른 구성요인인 교육과 진로미결정의 전제조건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의 각 구성요인들 간에도 전반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가장 높은 상관은 목표선택이며, 직업정보, 사회성, 긍정성, 미래계획, 통제성, 문제해결 순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이 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각 구성요인 중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소인 목표선택, 미래계획, 직업정보는 진로결정수준과 높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본 결과, 진로결정수준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인인 목표선택이며 사회성, 미래계획, 문제해결의 순임을 알 수 있었으며, 문제해결의 경우 진로결정수준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진로결정수준에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모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Betz & Vuyten, 1997; Gati et al., 2012; Taylor & Poppa, 1990)의 결과와 같으며, 국내 대학생 대상의 연구(김경옥, 2009; 이은경, 이혜성, 2002)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자아탄력성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이은정, 2012)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과목 운영, 진로상담지원체계 구축과 대학생 자신의 노력이 동반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등의 개발과 시행으로 자아탄력성을 향상시켜 대학생이 자신이 선택한 진로와 관련하여 주체적인 결정과 확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진로결정의 하위요인인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결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인인 목표선택과, 미래계획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은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수준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수준에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인인 목표선택과 미래계획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황지영(2007)의 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진로결정수준의 또 다른 하위요인인 교육과 진로미결정의 전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결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인인 목표선택이며,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인 사회성, 통제성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대학생들 대상으로 살펴보았으며, 각 하위요인들 간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취업난 속에서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의 향상은 만족스러운 진로 설정과 성공적 취업을 위해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진로결정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고용노동부와 대학교 및 담당자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진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진로 지도에 있어서도 역량을 보유한 전문가 양성 및 체계적이며 차

별성 있는 진로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대상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 진로결정수준을 각각 다룬 연구들은 있었으나, 이 세 가지 변인을 함께 다룬 연구들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과 진로결정수준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진로결정수준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목표선택, 미래계획과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사회성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밝힘으로 진로결정에 있어 확신을 갖기 어려워하거나 성공에 관한 신념이 낮아서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결론 및 제언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결정수준에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인인 목표선택과 미래계획이 자아탄력성의 사회성이 정적영향을 미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의 구성요인인 문제해결은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제해결 문항이 진로, 직업을 바꾸겠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진로결정수준의 문항의 내용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강영숙(2016)과 신종원(2015)의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둘째,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 수준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구

성요인인 목표선택, 미래계획은 정적영향을 미치고,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들은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들은 감정통제, 고난과 역경의 극복,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 등을 의미하는 반면 진로결정수준의 구성요인인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 수준은 진로결정에 있어서의 확신하는 정도를 의미하므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셋째, 교육과 진로미결정의 전제조건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인인 목표선택이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인 사회성이 정적영향을 미치고,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인 통제성은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연구의 제한점을 가지므로 후속 연구를 위하여 제언을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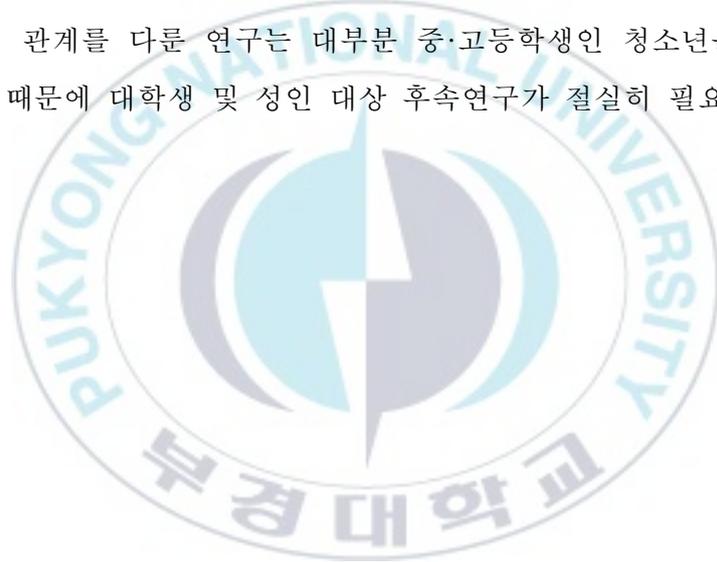
첫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서 각 변인들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경우 각 변인 간 데이터에 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측정 상 왜곡된 지각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설문지 조사 외에 관찰법이나 면접법, 대상자와의 인터뷰를 활용한 사례연구 등 다양한 연구 방법과 조사의 병행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신뢰도가 높은 연구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B시 소재 한 대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을 하여 그 결과를 얻었다. 이는 연령별, 전공별, 학년별, 성별이나 대학별, 지역별 등 차이가 있어 연구 결과를 한국 대학생 모두의 특성들을 반영한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이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향후 연구에서 체계적인 절차

를 통해 공정하고 편중되지 않도록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방법만을 활용하여 각 변인 간 영향관계를 밝혀냈다. 보다 사실화된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향후 동일한 대상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 및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측정시기를 달리 하여 연구하는 추가적 종단연구의 수행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 및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다루는 선행 연구가 미흡한 실정으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자아탄력성과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연구의 수가 매우 부족하며, 자아탄력성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대부분 중·고등학생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 및 성인 대상 후속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부명 (2003). 대학생들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 방식: 성별, 학년별, 계열별 차이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선영 (1996). 아이덴티티 발달수준과 진로미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영미, 유순화, 윤경미 (2009). 전문계 고등학생이 지각한 진로장애와 자아탄력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1), 415-438.
- 강영숙 (2016).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동기, 진로소명이 진로 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미나, 박재황 (2011). 대학생의 내, 외적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포부, 진로결정수준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직업교육연구, 30(4), 259-279.
- 고유미 (201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회복탄력성과 유아의 자기통제력간의 관계.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향자 (1992). 진로의사결정모형의 문헌적 고찰. 인간이해, 13, 3-19.
- 김경욱 (2009).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성취목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501-519.
- 김대권 (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및 스트레스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희 (2003). 만성질환아의 극복력 (resilience) 측정도구 개발 (Docto

- ral dissertation).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명숙 (2009). 자기효능감, 성취목표지향성, 지각된 교사의 성취목표 강조가 수학불안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10(2), 103-133.
- 김미경 (2014). **전문대학생 진로탄력성 척도개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향, 김성희 (2010). 아동, 청소년상담: 중학생 자아탄력성 척도개발. *상담학연구*, 11(1), 189-206.
- 김민정, 김봉환 (2007). 불안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0(1), 13-25.
- 김보경 (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셀프리더십, 문제해결력 및 진로동기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선중 (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선희 (2011). **어머니의 역할만족도 및 유아의 심리 건강성이 유아의 유아 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 (1997).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의 관련변인 연구. *교육심리연구*, 11(2), 1-19
- 김영상 (2009). **대학생의 자기분화 및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이지, 정신영, 김지애, 김지윤, 이동귀 (2011).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

-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971-993.
- 김정화, 김미경, 김진경, 고은영 (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 행동에 따른 군집유형과 진로장애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417-442.
- 김종운, 김현희 (2015). 전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2), 619-637.
- 김주환 (2011). **회복 탄력성**. 경기도 : 위즈덤 하우스.
- 김진희 (2015). 진로정체성, 진로통찰력과 진로탄력성이 대학생의 취업 의지에 미치는 효과. **직업과 고용서비스 연구**, 10(1), 47-56.
- 김현영, 송유길, 유근희, 이한나, 유가경, 이수진, 윤은경 (2012). 인과지도를 활용한 간호대학생의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이직위험 분석. **한국간호과학회 학술대회**, 286-286.
- 김현주 (2005). **놀이치료자의 자아탄력성 및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역전이 관리능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성 (1998). 회복력 (Resilience) 개념 개발,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8(2), 403-413.
- 나용주, 윤병섭 (2017).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경영컨설팅연구**, 17(1), 135-150.
- 문은숙 (2010).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탄력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순선 (2015).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적용이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완성 (2002).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교육방법연구**, 14(2), 104-125.
- 박원주 (2011). 자아탄력성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과 긍정및 부정정서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원주, 이기학 (2008). 탄력성에 따른 성격유형별 학교생활적응,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차이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675-695.
- 박원주, 이기학 (2010).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긍정정서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1(2), 795-808.
- 박은희 (1996). 자아탄력성, 지능 및 학업성취도와 관계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주현, 김용태 (2009). 대구지역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진로결정유형,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9(3), 59-80.
- 박현진 (1996). 자아탄력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혜련 (2011).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지각된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지영 (2002). 부모 이혼의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연성(Resilience) 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영순 (2012). 고등학생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자아탄력성 및 성별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영란 (2007).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학교 생활적응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선희 (2010). **적응 유연한 다문화가정 유아의 보호 요인 탐색**. **열린 유아 교육연구**, 15(6), 319-344.
- 신소영, 권성연 (2014). **진로결정과 자기주도학습, 학습몰입, 학습성과 인식의 관계 구조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7): 167-185.
-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4), 105-131.
- 신종원(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희망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혜정 (2013). **상업계 특성화고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예린 (2010). **한국판 소명 척도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승민 (2003).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 상호작용양식과 진로결정 효능감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엄동욱 (2008). **대졸 신입사원의 조기퇴사 실태와 원인 기업 인적자원관리 (HRM)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11(2), 237-260.
- 엄태영, 김교연, 한복남 (2009). **빈곤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청소년상담 연구지** 17(2), 68-85.
- 여선영 (2016).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

오승아, 이양희 (1999). 장애아동가족의 Resilience 관련 요인척도의 개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6(2), 21-48.

윤현희, 홍창혁, 이진환 (2001). 부모보고형 자아탄력성 척도의 개발. **심리과학**, 10(1), 33-53.

이경선, 남현우 (2011).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가족건강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0, 233-256.

이상길 (2008).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고교생과 대학생 및 성별간의 차이. **진로교육연구**, 21(3), 217-230.

이성식, 정철영 (2007).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4), 83-109.

이수경, 이지연, 황순택 (2001). 한국아동인성검사 (KPI-C)의 자아탄력성 척도(ERS) 타당도 연구. **정신건강연구**, 20(0), 213-225.

이숙정, 유지현 (2008). 대학생의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2(3), 589-607.

이숙정, 유지현 (2009). 여대생이 인식한 자기결정성이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장벽 및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여성연구**, 48(2), 35-63.

이유민 (2014).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은경 (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이혜성. (2002).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 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09-120.
- 이은교 (2016).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석, 김성희 (2012). 대학생 자아탄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3(6), 3077-3094.
- 이은영 (2008). **학업 우수 청소년의 부모애착, 학업 자기효능감 및 진로 포부 간의 관계: 남학생과 여학생의 모형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정 (2012).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긍정정서와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규 (2006).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고3 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0(3), 571-586.
- 이정희 (2015).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원, 최은수 (2015).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사회적지지, 진로동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Andragogy Today**, 18(1), 33-54.
- 이종찬 (2013). 대학교육 만족과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졸업 후 취업만족에 미치는 영향: 취업목표달성의 매개효과. **직업교육연구**, 32(3), 77-96.
- 이종찬 (2013).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연구성과의 비교분석. **취업진로연구**, 3(1), 49-66.

- 이해리, 조한익 (2005).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개발, **한국청소년연구**, 16(2), 161-206.
- 이현주 (2000).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따른 인지양식 차이. **교육학연구**, 38(1), 235-257.
- 임은미, 장선숙 (2004). 인터넷 활용 진로정보탐색 프로그램의 즉시적 효과와 지속적 효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8(4), 139-154.
- 장선철 (2005). 대학생의 개인변인, 사회적지지 및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과의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7(3), 117-133.
- 장휘숙 (2001). 정신병리를 차단하는 요인으로서의 탄력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1), 113-127.
- 전영자, 강경훈 (2008).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202.
- 정영미 (2017). 교육성과와 진로동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영향 관계: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9(3), 251-271.
- 주정현 (2011).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지지 및 자아탄력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동선, 정철영 (2003).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동기 요인 및 애착의 관계 분석. **직업교육연구**, 22(1): 115-143.
- 최숙현 (2008). 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태도성숙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화영 (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미래지향 시간관, 자기통제력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용재, 박지원, 박현석 (2016). 2년제 대학생의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체육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체육학회지*, (66), 433-446.

한효정 (2012). *대학생의 진로미결정과 내정통제성, 부적응적 완벽주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특성불안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희원, 문경숙 (2015). 대학생의 학업정서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열린교육연구*, 23(4), 75-103.

허숙영 (2013).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진로미결정 및 진로성숙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미진 (2012). *항공사 객실승무원 취업준비생의 직업존중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구*. 동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은숙 (2006). 탄력성(resilience)의 개념적 이해와 교육적 방안. *특수교육학연구*, 41(2), 45-67.

황지영 (2007). *대학생의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

Bartelt, D. W. (1994). *Questions of Validity. Educational Resilience in inner-city America: Challenges and prospects*. NY : Routledge.

Betz, N. E. (1992). Counseling uses of career self efficacy theor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1(1), 22-26.

-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M.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47-57.
- Betz, N. E., & Vuyten, K. K. (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2), 179-189.
- Block, J. (1982). Assimilation, accommodation, and the dynamics of personality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3, 281-291.
- Block, J. H. & Block, H.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2), 39-101.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De Bruin, G. P., & Lew, C. C. (2000). Construct validity of the career resilience questionnaire. *Journal of Industrial Psychology*, 28(1), 67-69.
- Dyer, J. G., & McGuinness, T. M. (1996). Resilience: Analysis of the concept.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10(5), 276-282.
- Gati, I., Asulin-Peretz, L., & Fisher, A. (2012).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A 3-year follow-up.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0(1), 6-27

- Grotberg, E. H.(1995). *A guide to promoting resilience in children: strengthening the human spirit*. La Haya: Bernard Van Leer Foundation.
- Guay, F., Senécal, C., Gauthier, L., & Fernet, C. (2003). Predicting career indecision: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2), 165.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3), 326-339.
- Higgins, R. O. C. (1983).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the Capacity for intimacy*.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Jones, L. K. (1989). Measuring a three-dimensional construct of career indecision among college students: A revi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cale: The Career Decision Profi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4), 477.
- Kavanagh, D. J., & Bower, G. H. (1985). Mood and self-efficacy: Impact of joy and sadness on perceived capabilitie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9*(5), 507-525.
- King, A. S (1999). Crescendo model of career motivation and commitment; Identity, insight, and resil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Value Based Management ,12*(1), 22-49.
- Klohn, E. C.(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1067.

- Lapan, R. T., Boggs, K. R., & Morrill, W. H. (1989). Self-efficacy as a mediator of investigative and realistic general occupational themes on the Strong-Campbell Interest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2), 176.
- LeBuffe, P. A., & Naglieri, J. A. (2003). The Devereux Early Childhood Assessment Clinical Form (DECA-C): A measure of behaviors related to risk and resilience in preschool children. *Can. J. Sch. Psychol*, 22, 121-127.
- Lent, R. W., & Hackett, G. (1987). Career self-efficacy: Empirical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3), 347-382.
- Lent, R. W., & Hackett, G. (1987). Career self-efficacy: Empirical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3), 347-382.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 Litt, M. D. (1988). Self-efficacy and perceived control: cognitive mediators of pain toler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1), 149.
- Lopez, F. G., & Ann-Yi, S. (2006). Predictors of career indecision in three racial/ethnic groups of college wome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3(1), 29-46.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543-562.
- M. (2003). Adolescent resilience: A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olescence, 26*(1), 1-11.
- Newman, R. (2005). APA's Resilience Initiative.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6*(3), 227.
- O'Connell-Higgins, R. (1983).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capacity for intimacy, Qualifying paper*.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Olsson, C. A., Bond, L., Burns, J. M., Vella-Brodrick, D. A., & Sawyer, S. M. (2003). Adolescent resilience: A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olescence, 26*(1), 1-11.
- Osipow, S. H., Carney, C. G., Winter, J., Yanico, B., & Koschier, M. (1980). *The career decision scale (3rd rev.)*. Columbus, OH: Marsthoron Counseling and Press.
- Osipow, S. H. (1999). Assessing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5*(1), 147-154.
- Reivich K., & Shatte, A. (2002). *The resilience factor*. NY: Broadway Books.
- Rutter, M. (1990). Commentary: Some focus and process considerations regarding effects of parental depression on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6*(1), 60.

- Schunk, D. H. (1989). Self-efficacy and achievement behavior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3), 173-208.
- Shelton, S. H. (1990). Developing the Construct of General Self-Efficacy. *Psychological reports, 66*(3), 987-994.
-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 L.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2nd ed., pp. 197-261)*. San Francisco : JosseyBass.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 Tolbert, E. L. (1980).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2nd ed.)*. MA: Houghton Mifflin Company.
- Tugade, M. M., & Fredrickson, B. L. (2004). Resilient individuals use positive emotions to bounce back from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2), 320.
- Wanberg, C. R., & Muchinsky, P. M. (1992).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Validity exten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1), 71 - 80.
- Waterman Jr, R. H. Waterman, JA, Collard, BA (1994, July-August).

Toward a career-resilient workforce. *Harvard Business Review*, 87-95.

Werner, E. E. (1993). Risk, resilience, and recovery: Perspectives from the Kauai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04), 503-515.

Werner, E. E., & Smith, R. S. (1993). *Overcoming the Odds: High 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N.Y: Cornell University.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자료조사입니다. 본 설문지의 각 문항은 정해진 답이 없으며, 문항을 읽고 즉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 그대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본 설문지는 3개 파트 7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응답은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연구하는데 소중한 연구 자료가 될 것입니다.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자료는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의거하여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본 설문에 대한 귀하의 응답 및 분석결과는 연구를 위한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솔직하고 성실히 응답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어 설문에 참여하여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 전공

지도교수 : 강 승 희

연구자 : 장 미 소 (un486jej@naver.com)

※ 설문조사 응답 전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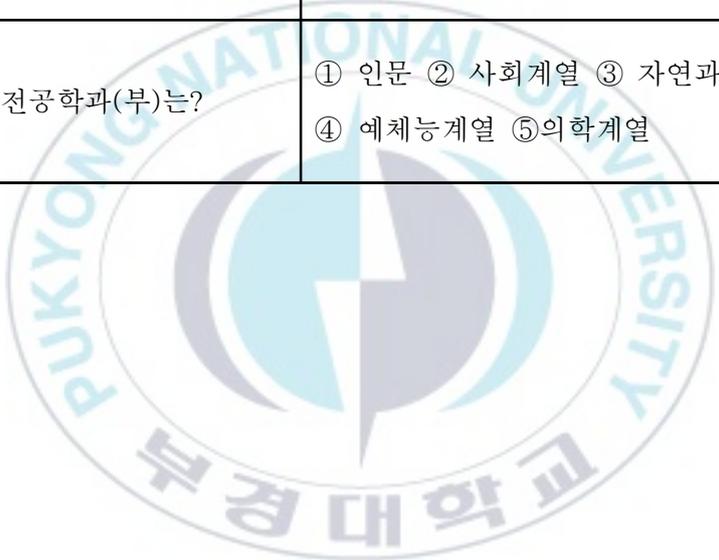
본 설문에 참여하시는 것에 대하여 귀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며,
응답한 설문내용을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응답자 확인 서명 : 서명, 사인 부탁드립니다. (인 또는 서명)

1. 다음은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V”표해 주세요.

번호	문 항	세부설문내용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세
3	귀하의 학년은?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4	귀하의 전공학과(부)는?	① 인문 ② 사회계열 ③ 자연과학계열 ④ 예체능계열 ⑤의학계열



2. 다음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V” 표해 주세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선택 가능한 전공들 중에서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진로목표에 대해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선택한 전공과 관련해서 학업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나의 능력을 정확히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마음에 두고 있는 직업들 가운데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선택한 전공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들을 계획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힘든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목표하는 전공이나 진로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나에게 어떤 직업이 맞는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의 향후 10년간의 고용동향을 알아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내가 원하는 생활양식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이력서를 잘 준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처음에 선택한 전공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전공을 바꿀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내가 직업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평균 수입과 연봉을 알아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나는 진로를 결정한 후 그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선택한 직업이 만족스럽지 않으며 다른 직업으로 바꿀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가 어떤 것은 희생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희생할 수 없는지 구분하여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전공이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나의 적성, 능력에 맞는 직업과 관련 있는 회사, 혹은 기관을 알아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대학원이나 전문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취업을 위한 면접과 관련한 절차들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처음의 선택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합리적인 대안이나 다른 진로를 알아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은 자아탄력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V” 표해 주세요.

번호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가능한 해결방안에 대해 먼저 생각한 후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감사해야 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매우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4	나는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다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적절한 문구나 단어를 잘 찾아낸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을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분위기나 대화 상대에 따라 대화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재치있는 농담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싫어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조건들은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고맙게 여기는 것들을 모두 적는다면, 아주 긴 목록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내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알아챈다.	①	②	③	④	⑤
14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나는 어떠한 유혹이나 방해도 잘 이겨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동료가 화를 낼 경우 나는 그 이유를 꽤 잘 아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맞든 아니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나는 해결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사람들의 얼굴표정을 보면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친구가 별로 없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매우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20	세상을 둘러볼 때, 내가 고마워 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21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사람을 보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아무리 당황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잘 안다.	①	②	③	④	⑤
23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될 거라고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열심히 일하면 언제나 보답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이슈가 되는 문제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토론할 때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일이 생각대로 잘 안 풀리면 쉽게 포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진로결정수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V” 표해 주세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 다
1	장래 직업을 결정했으며,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현재의 내 전공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나에게 재능이 있고 기회도 주어진다면 나는 ()이(가) 될 수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똑같이 호감이 가는 직업들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결국 직업을 가져야 하지만 내가 아는 어떤 직업에도 호감을 느끼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이(가) 되고 싶지만 가족, 지인들과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지금 진로결정이 어렵다. 생각이 일치하는 직업을 발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7	지금까지 나는 진로선택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내 스스로 결정해 본 경험이 별로 없고, 당장 진로결정을 할 정도의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8	진로 선택에 관한 모든 것들이 너무 모호하고 불확실해서 당분간 결정하는 것을 보류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9	내가 어떤 진로를 원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다른 진로를 모색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10	나의 진로선택에 확신을 갖고 싶지만 내가 아는 어떤 진로도 나에게 이상적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1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 버리고 싶다. 내가 어떤 진로를 택해야 할지 알려줄 수 있는 검사라도 받고 싶다.	①	②	③	④
12	나의 전공분야가 내가 만족할 만한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나의 적성과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로결정을 당장 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나의 관심분야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른다. 흥미를 끄는 분야가 몇 가지 있지만 나의 진로 가능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많은 분야에 관심이 있으며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지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하나의 직업을 찾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진로결정을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 확실하지 않다. 내가 선택한 ()이(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17	진로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직업들에 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알고 있지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